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프로그램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노혜련¹⁾ · 김수영^{**} · 김마미^{***} · 김영란^{****}

1. 서론

학교폭력이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내 여러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차원의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 프로그램이 과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 연구들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주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개인별로 프로그램효과의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나 프로그램의 운영과 진행과정과 관련된 변수가 프로그램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학교폭력프로그램의 효과성연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의 전반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검증되었을지라도 이것을 실천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 직면하게 되는 여러 과정변수로 인해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일정하더라도 과정변수 즉, 진행요인(예: 진행자의 전문성, 운영시간과 장소의 적절성과 같은 진행환경, 진행자와 참여자간의 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운영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진행자들을 대상으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나눔과 열림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 굿네이버스 기획실

로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인적 요인과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인의 영향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진행요인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사회정신건강연구소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 경기지역의 3개 초등학교 및 13개 중학교 총 1,136명의 학생과 프로그램 진행자 총 21명을 대상으로 2005년 11월~12월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프로그램 효과는 참여자가 지각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의미하며, 참여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이 학교폭력해결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학생들의 학교폭력 대처능력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관해 질문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변수로는 프로그램 참여자 요인(자존감, 가족관계, 학교폭력 가해·피해경험), 프로그램 외부요인(학교환경)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요인(진행자의 전문성, 진행환경, 진행방법, 참여도, 참여자와의 관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요인과 프로그램 외부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진행요인이 종속변수인 프로그램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3. 연구결과

1)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개인적 요인과 학교환경

본 연구의 대상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3개교의 223명(5~6학년)과 중학교 13개교의 913명(중1, 2학년)으로 총 16개교의 1,136명이다. 남학생이 588명(52.1%)으로 여학생 541명(47.9%)보다 약간 많았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인적 요인으로 자존감과 가족관계,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을 살펴보았는데, 자존감은 4점 척도의 평균 3.03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수준을 보여주었다.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대해 질문한 가족관계는 4점 척도의 평균 3.42점으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학기동안 학교폭력의 가해경험 여부를 묻는 10개의 질문에 대해 평균 4.75번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해경험 여부를 묻는 10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 3.33 번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학교폭력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프로그램 외부요인인 학교환경은 학생들이 지각한 학급 및 학교 분위기와 학교폭력에 대한 선생님의 태도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4점 척도(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학급과 학교환경이 안전하고 민주적인 것을 의미 함)에서 평균 2.67점으로 나타나 학교환경이 매우 안전하거나 민주적이라고 여기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프로그램 진행요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28.4%는 학사의 학력을 가진 진행자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반면 나머지 71.6%는 석사의 학력을 가진 진행자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한편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전에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진행자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691명(78.9%)으로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경험자에 의해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그램 참여자와 진행자간의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학교에 일정 시간이상 상주하면서 참여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온 학교상주형 진행자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700명(61.6%)이었던 반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대면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시간 이외에는 학교에 머물러 있지 않는 외부전문가 활용형 진행자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436명(38.4%)이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운영장소가 적절하였는지 묻는 5점 척도 질문에 각각 보통이상의 만족수준인 평균 3.57점과 3.61점으로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에 투입된 진행자수는 평균 1.61명이었으며 참여자와 진행자간의 의사소통을 평가하는 점수는 5점 척도 질문에 평균 3.52로 나타나 역시 보통이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5점 척도에 평균 3.41점으로 응답하여 대체로 보통이상의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프로그램 효과에 미치는 영향

<표 1>은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독립변수로 프로그램 참여자요인을 투입한 뒤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외부요인, 프로그램 진행요인을 투입하여 총 3개의 모델이 제시되었다.

먼저 모델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프로그램효과에 대한 독립변수 프로그램

참여자요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8.9%이었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8.72, p<.001). 이중 자존감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이 프로그램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학생들은 자존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이 적을수록 프로그램 효과를 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2는 모델 1에 프로그램 외부요인인 학교환경 변수가 추가된 분석모형으로, 모델 2에 투입된 독립변수 전체는 종속변수의 변량을 17.2%가량 설명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8.724, p<.001). 종속변수에 대해 모델 2에 추가로 투입된 학교환경 변수만의 독자적인 설명력(R²변화량)은 8.9%였다. 모델 1에 비해 변수 하나의 추가만으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2배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모델 1에 투입된 참여자 개인요인의 영향력이 반영된 후에도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환경이 프로그램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모델 2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화된 계수(Beta)의 절대값 크기로 살펴보면, 새로 추가된 학교환경이 가장 큰 영향력(.3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 기여도는 모델 1에 비해 작아졌지만 그 다음으로 자존감(.18)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08)이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델 2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존감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이 적을수록, 그리고 학교환경을 안전하고도 민주적인 곳으로 인식할수록 프로그램 효과를 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프로그램효과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프로그램효과)		모델1		모델2		모델3	
		B	β	B	β	B	β		
프로그램 참여자요인	성별	-.04 2	-.022	-.04 8	-.025	-.08 0	-.042		
	자존감	.319 ***	.206	.287 ***	.185	.097 *	.063		
	가족관계	.113	.062	.047	.026	.041	.023		
	학교폭력 가해·피해경험	-.13 *** 3	-.151	-.06 * 8	-.078	-.01 6	-.018		
프로그램 외부요인	학교환경				.778 ***	.314	.355 ***	.143	
프로그램 진행요인	진행자 전문성	진행자 학력 학교폭력프로그램 진행경험					.063 -.00 9	.029 -.004	
	진행 환경	운영시간의 적절성 운영장소의 적절성 진행자 수					.106 *** .051 .004	.122 .057 .002	
	진행 방법	원활한 의사소통					.156 ***	.181	
	참여도	프로그램 참여도					.405 ***	.442	
	참여자 와의 관계	진행자의 학교상주여부					-.06 5	-.030	

독립변수 \ 종속변수(프로그램 효과)	모델1		모델2		모델3	
	B	β	B	β	B	β
상수	2.303***		.464		-.333	
F value	18.724***		33.062***		70.435***	
R ²	.089		.178		.547	
Adjusted R ²	.084		.172		.539	
R ² 변화량	.089		.089		.370	
변화량의 F	18.724***		82.457***		77.323***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모델 2에 프로그램 진행요인이 추가된 모델 3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 3의 설명력은 54.7%로 전 단계 모델에 비해 프로그램 진행요인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이 37.0% 정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변화량의 $F=68.72$, $p<.001$). 이는 모델 1과 2에서 먼저 투입된 프로그램 참여자 요인과 프로그램 외부요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 한 후에도 프로그램 진행요인이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프로그램의 진행요인으로 분류되는 8개의 변인들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프로그램의 효과(종속변수)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준화된 계수(Beta)를 통해 각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델 2에서 유의미한 변수였던 참여자의 학교폭력의 가해·피해경험이 모델 3에서는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환경과 자존감의 상대적 영향력도 축소되면서 추가적으로 투입된 변인 중 운영시간의 적절성과 원활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참여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그램 참여도(.442), 원활한 의사소통(.181), 학교환경(.142), 운영시간의 적절성(.122), 자존감(.064)순으로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진행자와 참여자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학교환경이 안전하고 민주적이라고 인식할수록,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적절할수록, 참여자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프로그램 효과를 높게 지각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된 변수들이 프로그램 참여자요인이나 프로그램 외부요인보다도 프로그램 효과를 더욱 잘 설명해주는 변인임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프로그램 효과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참여자와 진행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운영시간의 적절성 등도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4. 결론과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에는 일차적으로 학생의 개인적인 요인 중 자존감과 외부요인인 학교환경, 그리고 진행요인 중에서는 학생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 학생운영시간의 적절성, 진행자와 참여자간 의사소통의 원활한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과 같이 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목표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학교환경의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방식과 관련된 제반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시사해 준다. 그중에서도 특히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보다 흥미롭게 구성하고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들(예: 토론, 역할극, 게임을 중심으로 한 모둠활동 등)을 보다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진행자의 학력이나 진행경험, 운영장소 등의 표면적이거나 물리적인 조건과 진행자 수와 같은 인력의 양적 투입보다는 실제 진행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시간관리 능력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능력을 증진시키는 훈련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 주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환경이 프로그램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학생이 속한 1차적 환경인 학급과 학교가 보다 안전하고 민주적인 곳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개별 프로그램의 실시와 함께 학급의 사회적 기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사교육 등 학생을 둘러싼 학교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선진외국의 연구결과(Gottfredson, 1997)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어 프로그램 기획 시 이에 대한 총체적인 준비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Gottfredson, D. (1997). "School-Based Crime Prevention." In L. Sherman, D. Gottfredson, D. McKenzie, J. Eck, P. Reuter, & S. Bushway, *Preventing crime: What works, what doesn't, what's promising*, A Report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Prepared for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